

‘와쇼쿠(和食)’ 문화 계승을 위한 보호 조치와 대책

김현욱*
hwk33@kookmin.ac.kr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1 와쇼쿠 문화의 실태 조사 |
| 2. 와쇼쿠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 3.2 와쇼쿠 문화의 보호 조치 |
| 2.1 유산 등재신청 경위 | 4. 와쇼쿠 문화의 계승 대책 |
| 2.2 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초법규적’ 조치 | 4.1 와쇼쿠 문화 보호·계승 추진조직 |
| 2.3 유산 등재신청 이유 | 4.2 와쇼쿠 문화 계승 대책과 과제 |
| 3. 와쇼쿠 문화의 현재와 보호 조치 | 5. 나오며 |

主題語: 와쇼쿠(Washoku), 와쇼쿠문화 국민회의(Washoku Japan),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식문화(The dietary culture), 자연존중(Respect for nature)

1. 들어가며

2013년 12월, 일본의 전통적인 식문화 ‘와쇼쿠(和食)’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었고, 이를 계기로 일본 국내외에서 와쇼쿠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일본의 농림수산성 산하 식비전추진실(食ビジョン推進室) 보고자료(2015년 2월)에 따르면, 유산 등재 이후 해외의 일본식 레스토랑 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방일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에 대한 관심사 중 1위는 음식이다. 일본 국내에서도 와쇼쿠 관련 보도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일본국민의 와쇼쿠 식사 빈도가 증가 경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와쇼쿠 문화의 실천자인 일본국민들의 식생활을 중심으로 보면, 음식의 다양화와 가정환경의 변화 등에 의해 와쇼쿠의 존재감은 줄어들고 있다. 2017년도 농림수산성 자료에서도 일본국민이 와쇼쿠 문화에 대해 균형이 잡힌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여전히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로운 음식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일본요리와 요리법을 계승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7.8퍼센트에 불과했다.¹⁾

*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부교수

1) 2017년 농림수산성의 ‘식육(食育)에 관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지역과 가정이 계승한 전통적인 요리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기준에는 신청하는 유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²⁾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제2조 정의’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세대간 전승’과 ‘정체성 및 계속성’이 강조되고 있다.³⁾ 즉,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해당 문화가 사라지지 않도록 촉진 시켜 가야 할 것을 의미하며, 와쇼쿠의 문화유산 등재로 일본 정부는 와쇼쿠 문화를 보호·계승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국민의 식생활에 있어서 와쇼쿠 문화의 실태 파악과 계승을 위한 방안의 모색 및 시책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일본 정부는 국민의 와쇼쿠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정보 발신, 식생활 교육 추진, 와쇼쿠의 보급과 계발 등 와쇼쿠 문화의 보호·계승을 추진해 왔다.

그렇다면 와쇼쿠 문화의 보호·계승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민·관의 협력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본고에서는 농림수산성과 민간조직의 협력 및 일본국민 대상 각종 설문조사 결과에 주목하면서, 와쇼쿠의 유네스코 유산 신청배경과 와쇼쿠 문화의 실태, 그리고 와쇼쿠 보호 조치 및 계승 대책의 특징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와쇼쿠 문화 보호·계승의 현재와 앞으로의 과제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와쇼쿠 문화의 보호·계승에 관한 연구는 한류가 식문화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식의 진흥과 문화 가치 제고, 그리고 나아가 2022년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신청 대상인 전통 ‘장(醬) 문화’⁴⁾의 등재기반 조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요리법 등을 지역과 차세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의 비율이 37.8퍼센트, 계승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62.2퍼센트이다.

- 2)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기준은 5가지 사항이며, 그중 세 번째가 “신청유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이다.
- 3)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제2조 ‘정의’에는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표상·표현·지식·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물품·공예품 및 문화 공간을 말한다. 세대간 전승되는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이들이 정체성 및 계속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 이 협약의 목적상 기존 인권에 관한 국제문서와 공동체·집단·개인간 상호 존중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요청과 양립하는 무형문화유산만이 고려된다.”라고 되어 있다.
- 4)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한국의 전통 장(醬) 문화’를 202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신청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문화재청 보도자료(2019년 12월 9일)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재 제137호(장 담그기)로 지정된 장 문화는 전 국민이 장을 담그고 나누는 전통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으며, 장은 한국 음식의 맛과 정체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장을 담그고 나누는 행위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족과 공동체를 유지하고 전승하는데 이바지해 왔다. ‘한국의 전통 장 문화’는 2022년 3월말까지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 2024년에 등재가 결정될 예정이다.

2. 와쇼쿠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2.1 유산 등재신청 경위

2010년의 ‘프랑스 미식술’을 시작으로 멕시코의 전통요리, 터키의 케슈케크 등의 식문화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자, 일본에서도 자국의 식문화를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특히, 2011년도에 한국이 궁중음식으로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NPO법인 ‘일본요리아카데미(日本料理アカデミ)’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일본의 전통적인 식문화를 유네스코 유산으로 신청하지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어 교토부(京都府)에 도움을 청하였고, 이에 응한 교토부 지사가 문부과학성을 방문하여 지원과 추천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민간에서 시작된 일본 식문화의 등재신청 움직임에 일본 정부가 응답하여 2011년 7월에 ‘일본 식문화의 세계무형유산 등록을 위한 검토회(日本食文化の世界無形文化遺産登録に向けた検討会)’(이하 검토회)를 발족시키면서 등재신청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고, 같은 해인 2011년 11월까지 4차례의 검토회를 마친 뒤에 검토회 회장과 농림수산성 식비전실(食ビジョン室)이 협력하여 신청서 문안을 마무리 지었다. 그 후 일본 식문화의 국내 유산 등재 후보선정 결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검토회 당초의 등재 신청내용은 가이세키(会席)를 중심으로 한 전통 있고 특색 있는 일본 요리로 가이세키 요리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 왔지만, 한국의 궁중음식이 등재신청 보류되었다는 결과발표 직후에 가이세키 요리라는 신청명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⁵⁾ 검토회는 한국 궁중음식이 등재 보류된 이유를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게다가 고급문화⁶⁾”라는 점이라고 추측하고, 일본 식문화의 경우는 문화 당사자를 국민 전체로 확대하여, 널리 대중에게 열려있는 문화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그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전통적인 식문화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신청명칭으로 ‘와쇼쿠’가 거론되었다. 등재 신청서⁷⁾에서는 와쇼쿠를 일본의 전통적인 식문화라 하고, 요리 그 자체가 아닌 자연을 존중하는 정신에 근거를 둔 일본인의 식습관이라고 정의하였다. 그 후, 정식 신청명칭을 ‘와쇼쿠 ; 일본인의 전통적인 식문화—설을 예로 들어(和食 ; 日本人の伝統的な食文化—正月を例として)’로 결정

5) 신청명칭이 ‘와쇼쿠’로 결정된 배경에 관해서는 김현욱(2020)「일본 식문화의 유산 추진과 ‘와쇼쿠(和食)’의 무형문화유산 등재」(『日本文化學報』第84輯, pp.9-16) 참조.

6) 농림수산성 홈페이지「日本食文化の世界無形遺産登録に向けた検討会」第4回, p.8
<https://www.maff.go.jp/j/keikaku/syokubunka/pdf/gjjiroku.pdf>(검색일:2020.4.25.)

7) 문화청 홈페이지「無形文化遺産の代表的な一覧表への記載についての提案書」(農林水産省作成仮訳)
https://www.maff.go.jp/j/keikaku/syokubunka/ich/pdf/nf_wayakun.pdf(검색일:2020.4.20)

하고, 2012년 2월 6일 문화청의 ‘무형문화유산보호조약에 관한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었다. 한 달 뒤인 3월 9일에 와쇼쿠의 문화유산 신청이 정식으로 결정되었으며, 그해 9월에는 유네스코에 신청을 위한 최우선 심사안건으로 결정되었다.

2.2 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초법규적’ 조치

유네스코 문화유산 신청을 위한 검토회가 발족하여 와쇼쿠가 최우선 심사안건으로 결정되기까지 농림수산성의 와쇼쿠 문화유산 등재 추진에는 1년 남짓의 짧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를 두고 구마쿠라 이사오(熊倉功夫)는 일본 정부가 와쇼쿠의 문화유산 추진을 서둘렀다고 언급하였다.⁸⁾ 또한, 구마쿠라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부터 순서대로 신청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와쇼쿠의 경우는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일본 국내에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 급히 유네스코에 신청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두고 ‘초법규적(超法規的)인 조치’라고 평하였다.⁹⁾ 초법규적 조치란 국가가 정한 규정을 국가 스스로 벗어나는 특별한 행위를 말한다. 역사·문화연구자 구마쿠라 이사오는 검토회 회장으로서는 민관협동을 바탕으로 와쇼쿠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준비과정을 이끌었고, 신청서 작성의 중심역할을 했으며, 등재 결정 후에도 와쇼쿠의 차세대 계승사업을 주도해왔던 핵심적인 인물이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을 구마쿠라가 와쇼쿠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신청 후보선정에 대해 ‘초법규적’이라는 단어를 들어 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와쇼쿠의 유산 추진 과정이 매우 이례적이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우에나카 오사무(上中修) 역시 구마쿠라가 언급한 초법규적이라는 표현에 주목하면서 일본 정부가 ‘강제적인 방법(強引なやり方)’¹⁰⁾으로 유산 등재를 서둘렀다는 지적을 했다.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기준에는 신청유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항과 더불어 당사국의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전자의 적절한 보호 조치 마련 기준에 대해서는 일본의 ‘식육기본법’ 제24조¹¹⁾

8) 江原絢子·熊倉功夫(2018)『和食とは何か』思文閣出版, p.23

9) 熊倉功夫(2017)『和食文化を再考する』『學士會會報』學士會, p.54

10) 上中修(2019)『学校園における和食文化の保護と継承：和食のユネスコ無形文化遺産登録の申請過程の検証を通して』『教育学論究』11号, 関西学院大学教育学会, p.8

11)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는 전통적인 행사나 관례와 연관된 식문화, 지역의 특색있는 식문화 등 우리의 전통 있는 뛰어난 식문화의 계승을 추진하기 위해 이들에 관한 개발 및 지식 보급 외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에 전통적인 식문화의 계승을 추진하기 위해 계발 및 지식의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므로 등재기준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노가쿠(能楽), 가부키(歌舞伎), 나치의 덴가쿠(那智の田楽) 등 일본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 모두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나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일본의 식문화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후자의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준에는 어긋남을 알 수 있다.

<표1> 일본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무형민속문화재		문화심의회 승인
예능	공예기술	풍속관습·제례	민속예능	
노가쿠(能楽)	오자지지미·에치고조후(小千谷縮·越後上布)	오쿠노토의 아에노고토(奥能登のあえのこと)	하야치네가구라(早池峰神楽)	와쇼쿠: 일본의 전통적인 식문화(和食; 日本人の伝統的な食文化)
닌교쥬루리(人形浄瑠璃)	유키쓰무기(結城紬)	미부의 하나타우에(壬生の花田植)	아키우의 다우에오도리(秋保の田植踊)	
가부키(歌舞伎)	와시: 손으로 떠서 만드는 일본의 와시기술(和紙: 日本の手漉和紙技術)	사다신노(佐陀神能)	챗키라코(チャッキラコ)	
가가쿠(雅楽)		아마·호코·야타이 행사(山・鉦・屋台行事)	다이니치도부가쿠(大日堂舞楽)	
구미오도리(組踊)		내방신: 가면·가장한신들(来訪神: 仮面・仮装の神々)	다이모쿠다테(題目立)	
			아이누 고식무용(アイヌ古式舞踊)	
			나치의 덴가쿠(那智の田楽)	

2009년 7월 30일 문화청 발표자료¹²⁾에 의하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기준에 따라 일본 국내의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무형민속문화재 및 선정보존기술¹³⁾을 등재신청 후보 대상

12) 문화청 홈페이지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bunkazai/hogojoyaku/unesco/besshi.html> (검색일: 2020.4.15)

13) 문화재 보존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전통적인 기술, 또는 기능으로 보존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 이를 선정보존기술로 선정하고, 해당 보유자나 보존단체를 인정하는 제도를 만들어 필요한 원조를

으로 하고, 그중에서 차례로 선정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상기와 같은 기본방침과 더불어 등재신청 후보의 구체적인 선정방법으로는 관계 보호 단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문화재 구분과 지역 균형 등을 고려하며, 원칙적으로 문화재 지정 시기가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방침과는 달리 와쇼쿠의 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후보 선정은 신청서 준비가 마무리된 후에 문화청 무형문화유산보호조약에 관한 특별위원회의 승인(2012년 2월 6일)을 얻는 것으로 해결하였고, 이는 전례 없는 특이한 상황이 된 것이다.

2.3 유산 등재신청 이유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본방침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와쇼쿠를 서둘러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 한 배경이 무엇인지는 농림수산성대신 정무관((農林水産大臣政務官) 다나베 마사요(田名部 匡代)가 첫 번째 검토회(2011년 7월 5일)에 출석하여 전한 인사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다나베의 해당 발언을 검토회 심의서에서 발췌하여 적으면 다음과 같다.

지난번 원전사고로 풍평피해(風評被害:풍평·풍문에 의한 경제적 피해)가 매우 커서 생산자 여러분에게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이 점에 관해서도 일본은 어떤 국가보다도 안전·안심이라는 점에 철저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검토회가 개최됩니다만, 검토회를 기회로 생산자 여러분도 모쪼록 활기 있게 다시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등재를 위한 준비가 역시 음식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또 각 지역의 관광으로도 연결되고, 나아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검토회가 되어 가면 좋겠고, 그리고 최단 2년 후에는 등재가 이루어진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¹⁴⁾

이상의 발언에서 식문화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통해 동일본 대진재(大震災)로 인한 원전 사고의 타격에서 벗어나 활기를 되찾는 기회를 만들고, 또한 세계를 향해 일본의 식재료가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식문화의 활성화가 지역의 관광과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내용은 다른 문화유산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 후 문화청은 2012년 2월 17일자 보도자료¹⁵⁾를 통해 와쇼쿠를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신

하고 있다.

14)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https://www.maff.go.jp/j/keikaku/syokubunka/pdf/110705_report.pdf (검색일:2020.4.15)

15) 문화청 홈페이지

청 후보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신청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선, 첫 번째로 일본의 식문화는 자연존중 정신에 입각한 사회적 관습이며 이를 보호하고 계승하여야 한다는 점을 일본국민이 지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동일본 대진재와의 관련을 들었다. 해당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동일본 대진재에 의한 원전사고로 인해 풍평피해를 입은 일본 음식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일본 식문화는 일본 전체와 연관된 것으로, 일본 전체의 진재로부터의 부흥의 상징으로써 세계에 어필하기 위해 조급히 유네스코에 신청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일본 정부가 국내의 등재신청 기본방침을 깨고 신청준비를 서둘렀던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 즉, 동일본 대진재에 의한 원전사고로부터의 부흥과 동시에 일본 식품의 안전을 세계에 주장하고자 했던 것이다. 검토회 회장 구마쿠라의 비교적 최근의 논고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나 일본 식품에 대한 풍평피해가 확산하고, 수입을 금지하는 국가가 나오기까지 했으므로 일본 정부는 농산물 수출 급감으로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¹⁶⁾이라고 당시를 회상하고 있는데, 이는 유산 신청의 배경을 보다 직접적으로 설명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2011년 12월 24일에 일본 정부가 결의한 일본재생 기본전략의 중점 시책으로써 “일본 식문화에 대한 이해의 촉진과 매력 향상을 꾀하고, 일본문화의 발신으로 이어가기 위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한다”고 하였다는 점을 들었다. 2011년 12월에 발표한 ‘일본재생 기본전략’¹⁷⁾에는 세계에 대한 일본의 존재감 강화를 위한 중점과제 중의 하나로 일본 식문화의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들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일본이 자랑할 만한 식문화의 이해촉진과 그 매력 향상을 꾀하고, 일본문화의 발신으로 이어가기 위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일본 대진재 후의 위기극복을 위한 일본재생 기본전략으로 식문화의 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민간에서 시작된 일본 식문화 등재신청 움직임에 일본 정부가 빠르게 대처하고, 등재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최우선 심사안건으로 서둘러 결정한 배경에는 이같이 동일본 대진재

「ユネスコ無形文化遺産保護条約代表一覧表に係る提案候補の決定について」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zai/shokai/mukei_bunka_isan/pdf/mukei_bunkaisan_120309.pdf(검색일:2020.4.15)

16) 熊倉功夫(2017)「和食文化を再考する」『學士會會報』學士會, p.53

17) <https://www.kantei.go.jp/jp/singi/koyoutaiwa/dai7/siryous.pdf>(검색일:2020.4.15)

이후 침체한 일본 사회에 힘을 불어넣고자 하는 희망이 담겨있었던 것이며, 일본재생 기본전략에서 밝히고 있듯이 일본 식문화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세계에 대한 일본의 존재감을 강화한다는 목표가 있었던 것이다.

3. 와쇼쿠 문화의 현재와 보호 조치

3.1 와쇼쿠 문화의 실태조사

유네스코에 제출한 유산 등재 신청서¹⁸⁾에는 와쇼쿠의 사회적·문화적 기능과 의의를 “일본인의 건강한 생활과 장수, 비만 방지에도 기여한다”고 적었다. 또, 어떻게 무형문화유산 전반의 인지·확보에 공헌할 것이며, 그 중요성에 대해 국내외에서 인식을 높여갈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와쇼쿠는 균형 잡힌 건강한 식사에 의한 건강 증진과 장수 및 비만 방지에 도움이 되는 독특한 사회적 관습이므로, 그 기제는 무형문화유산이 건강 증진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갖게 되는 점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는 특히, 생활습관병이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사회에 있어서는 건강이 사람들의 관심 사항이므로, 일본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레벨에서 무형문화유산 전반의 인지도 및 그 중요성의 인식 향상에 이바지한다.

이상에서 와쇼쿠는 건강한 식문화이므로 와쇼쿠 문화를 널리 알림으로써 사람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현대에는 식생활의 다양화와 가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와쇼쿠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 등재 신청서의 보호 조치에 관한 항목에서는 일본 사회의 식문화 실태에 대해서

최근 핵가족화의 진전과 지역사회의 약체화, 식생활 양식의 표준화 진전 등에 의해 와쇼쿠가 점차 존재감과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라고 기술하였으며, 다음 부분에서

18) 농림수산업성 홈페이지 「無形文化遺産の代表的な一覧表への記載についての提案書」(農林水産省仮訳) https://www.maff.go.jp/j/keikaku/syokubunka/ich/pdf/nf_wayakun.pdf(검색일:2020.4.20)

최근 전통적인 식문화의 상실과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음식의 세계화 진전에 동반된 비만을 일으키는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등, 음식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라고, 일본 식문화의 실태를 적고 있다. 와쇼쿠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결정 이후, 위와 같이 일본의 식문화가 처한 위기 상황을 일본국민 전체가 인식하고 보호해 나가기 위해서 농림수산성은 전문가에 의한 ‘와쇼쿠의 보호·계승을 위한 검토회(和食の保護・継承に向けた検討会)’¹⁹⁾를 개최하고, 문헌조사와 설문조사, 지역주민과의 의견교환모임 등을 실시해 왔다.

2014년 11월부터 2회에 걸쳐 농림수산성이 개최한 ‘와쇼쿠의 보호·계승을 위한 검토회’가 와쇼쿠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²⁰⁾에 의하면, 유산 등재 이후 와쇼쿠 문화에 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와쇼쿠 문화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와쇼쿠 문화 보호를 위해 우려되는 점으로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향토 요리의 소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수입 야채의 증가, 전통적인 식사 예절을 모르는 젊은 층의 증가, 젊은 세대 여성들의 와쇼쿠 요리에 서툴다는 인식 등이었다. 같은 시기에 농림수산성이 국내 지역 네 곳에서 조부모, 부모, 자녀의 3세대를 모아서 의견을 교환하고, 와쇼쿠에 대한 생각을 청취했다. 이에 대해 젊은 세대는 와쇼쿠가 서양 음식과 비교해 접근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으며, 만들기 어렵고, 외식 시에는 단가가 비싸다고 했으며, 부모세대는 와쇼쿠를 가정에서 만들기에는 손이 많이 가며, 자녀에게 거들게 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로의 와쇼쿠 문화 계승이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점이 제시되었다.

한편, ‘와쇼쿠의 보호·계승 추진검토회(和食の保護・継承推進検討会)’가 전국 1만 명 규모로 시행한 국민식생활 설문조사 결과²¹⁾에 따르면, 와쇼쿠 등재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53.1%,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21.8%로, 와쇼쿠 등재 결정 직후이지만 일본 사회에

19) 2014년도의 ‘와쇼쿠의 보호·계승을 위한 검토회(和食の保護・継承に向けた検討会)’는 한정된 지역과 와쇼쿠에 관심을 가진 특정인을 중심으로 인식조사를 하고, 주로 와쇼쿠 보호·계승의 대상과 범위를 논의했다. 농림수산성은 2015년도에도 ‘와쇼쿠의 보호·계승 추진검토회(和食の保護・継承推進検討会)’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전문가에 의한 검토회를 개최하고, 와쇼쿠에 대한 국민 실태조사와 와쇼쿠 문화의 계승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의 검토·명확화·발신을 골자로 검토를 거듭해왔다. 와쇼쿠의 보호·계승 추진검토회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와쇼쿠 보호·계승의 기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 농림수산성 홈페이지「和食を未来へ」

<https://www.maff.go.jp/j/keikaku/syokubunka/culture/attach/pdf/index-75.pdf>(검색일:2020.4.25)

21) 농림수산성 홈페이지「和食文化を守る。つなぐ。ひろめる。」

https://www.maff.go.jp/j/council/seisaku/syoku_vision/pdf/h27_washoku_panfu.pdf(검색일:2020.4.25)

상당 부분 알려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민식생활 설문조사는 일상의 식생활과 가정의 와쇼쿠 문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실시되었다. 주목할 사항으로는 와쇼쿠 및 와쇼쿠 문화 계승 상황을 묻는 조사에서 와쇼쿠 문화를 배우고 이어가고 있다는 응답은 29.8%, 가르치고 전승시키고 있다는 응답은 16.8%에 불과했으며, 젊은 층일수록 그 비율은 낮아졌다는 점이다.

‘와쇼쿠의 보호·계승 추진검토회’의 결과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들어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 가치관 변화 등의 영향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식생활이 다양화하면서 와쇼쿠 문화의 계승도 변화하고 있다고 하고, 이러한 위급한 실태를 국민 전체가 인식하지 못하면, 와쇼쿠 문화는 점점 존재감을 잃어갈 것이라고 와쇼쿠 문화의 현재를 분석하였다. 와쇼쿠 문화를 배운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가사를 도우면서 어머니로부터 조리방법을 배웠다고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조모, 학교 선생님 순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조사결과로부터 와쇼쿠 계승에 있어 가정과 학교가 중요하며, 자녀 양육세대에 대한 와쇼쿠 교육 또한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3.2 와쇼쿠 문화의 보호 조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 근거하여 당사국은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제11조). 그리고 일반 대중, 특히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식제고 및 정보 프로그램 등의 수단을 통해 사회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존중 및 고양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제14조).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각종 식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였다.

먼저, 유네스코에 제출한 등재 신청서에는 와쇼쿠의 보호 조치로써 이제까지의 실천 예시와 함께 금후의 대책을 제안하였다. 신청서에서 규정한 보호 조치란 해당 요소를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다. 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2조)에서 말하는 ‘보호’는 “무형 문화유산의 감정·기록·연구·보존·보호·증진·고양·특히 공식적·비공식적 교육을 통한 전수 및 이러한 유산의 다양한 면모의 활성화 등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제까지 실시해온 식생활 교육 운동의 확대, 와쇼쿠 문화 보급의 중심이 될 인재육성, 심포지엄과 세미나를 통한 식문화 보급, 각 지역 특산의 식재료 보호 등을 보호 조치로써 제안하였다. 이들 보호 조치 실행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식육추진기본계획’에 따른 식생활 교육의 보급과 식문화 계승을 위한 활동 지원

지역특산품 보전을 위한 지리 표시 보호제도 도입
와쇼쿠의 문화적·사회적 역할을 알리기 위한 전람회 개최
과도한 상업화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지원

이 중에서 ‘식육추진기본계획’은 2005년에 제정된 ‘식육기본법’에 근거하여 “식생활 교육 추진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계획적인 추진 계획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제정”²²⁾한 시책으로, 제1차(2006~2010), 제2차(2011~2015), 제3차(2016~2020)에 걸친 장기 계획으로 추진 되어 왔다. 특히,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5년을 기간으로 하는 제3차 ‘식육추진기본계획’은 5대 중점과제를 축으로 하고 있으며, 중점과제 중의 하나인 ‘식문화의 계승을 위한 식육추진’항목은 와쇼쿠의 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보호 조치 책임에 입각한 것이다. 『식육백서(食育白書)』(자료편)에는 해당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와쇼쿠 ; 일본인의 전통적인 식문화’가 ‘자연존중’이라는 일본인의 정신을 구현한 음식에 관한 사회적 관습으로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2013년 12월)된 사실에도 입각하여, 식육 활동을 통해 향토 요리, 전통 식재, 식사 예절 등 전통적인 식문화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의 깊이를 더함에 따라 전통적인 식문화의 보호·계승을 추진한다.²³⁾

이상의 ‘식문화의 계승을 위한 식육추진’과제는 전통적인 식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식육추진을 목표로 하며, 구체적인 목표치는 지역과 가정에 전해 내려온 전통요리와 식사 예절 등을 물려받아, 다음 세대로 이어나갈 국민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그중에서도 젊은 층의 계승 비율을 60% 이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유네스코 유산 등재 결정 후의 와쇼쿠에 대한 주요 보호 조치 중 다른 하나는 2017년 ‘문화예술기본법’의 개정과 함께 ‘식문화’가 ‘생활문화’로 포함되어 명기되었다는 점이다. 2001년도에 성립했던 ‘문화예술진흥기본법’이 16년 만에 개정되면서 명칭도 ‘문화예술기본법’으로 바뀌었다. 개정된 ‘문화예술기본법’ 12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22) 黒谷佳代他(2019)「都道府県食育推進計画の特徴：具体的目標の分析から」『日本公衆衛生雑誌』66-12, p.756

23) 농림수산성 홈페이지『食育白書』(資料編)「第3次食育推進基本計画」
https://www.maff.go.jp/syokuiku/wpaper/h30_wpaper.html (검색일:2020.4.30)

국가는 생활문화(다도, 화도, 서도, 식문화 그 밖의 생활과 관련된 문화를 말한다.)의 진흥을 꾀함과 동시에, 국민 오락(바둑, 장기 그 밖의 국민적 오락을 말한다.)과 출판물 및 레코드 등의 보급을 꾀하기 위해, 이들에 관한 활동에 대한 지원, 그 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²⁴⁾

와쇼쿠 등재 결정 후인 2014년도부터 농림수산성의 예산 조치에 따른 보존 조치가 시행되고 있기는 했지만, 법 개정에 따라 명실공히 음식이 문화로 인지되고, 본격적으로 식문화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추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4. 와쇼쿠 문화의 계승 대책

4.1 와쇼쿠 문화 보호·계승 추진조직

와쇼쿠 문화의 보호·계승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기 위해 ‘일반사단법인 와쇼쿠 문화 국민회의(一般社団法人和食文化国民会議)’(이하 와쇼쿠 회의)가 설립되었고, 2015년 4월부터 정부와의 협력하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와쇼쿠 회의는 유네스코 유산 신청 준비 중이었던 2012년 3월에 유산 보호 조치에 책임을 지기 위한 조직으로 설치한 ‘일본 식문화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화 추진협의회(日本食文化のユネスコ無形文化遺産化推進協議会)’에서 출발한 조직이다. 이듬해인 2013년 7월에 당 추진협의회에 사무국을 개설하여 농림수산성에서 민간으로 이관하고, ‘와쇼쿠 문화의 보호·계승 국민회의(和食文化の保護・継承国民会議)’로 개칭하였으며, 이후 현재의 와쇼쿠 회의로 발전한 것이다. 와쇼쿠 회의 설립 과정을 알기 쉽게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와쇼쿠 회의’ 설립 과정>

2012년 3월	일본 식문화의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화 추진협의회
2013년 7월	와쇼쿠 문화의 보호·계승 국민회의
2015년 2월	일반사단법인 와쇼쿠 문화 국민회의(약칭:와쇼쿠 회의)

24) 문화청 홈페이지 「文化芸術基本法」(2017年6月23日改訂)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_gyosei/shokan_horei/kihon/geijutsu_shinko/kihonho_kaisei.html
(검색일:2020.4.30)

와쇼쿠 회의는 와쇼쿠의 보호·계승 책임을 맡은 유일한 민간단체이다. 현재 와쇼쿠 회의가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은 와쇼쿠 문화 소재자 간행, 보호·계승에 필요한 정보수집, 조사·연구, 와쇼쿠의 매력 발신, 조리기술과 기기의 전승, 향토 음식 발굴, 와쇼쿠 급식의 개발·촉진 활동 등이다. 또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책임지고 있다. 2017년의 ‘문화예술기본법’ 개정 당시 생활문화에 식문화가 포함된 배경에도 와쇼쿠 회의의 역할이 컸다. 와쇼쿠 회의 사무국에 따르면, “와쇼쿠 회의는 2015년부터 의원연맹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연구모임에서 설명과 협력을 요청하는 등 ‘문화예술진흥기본법’의 재검토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²⁵⁾해 왔던 것이다. 와쇼쿠 회의 사무국장 다지마 히로시(田島寛)는 유네스코 유산 등재가 최종목적이 아니고, 등재를 계기로 하여 와쇼쿠 보호·계승을 국민운동으로까지 확산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²⁶⁾ 이를 위해 와쇼쿠 회의는 농림수산성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생활습관 속에서의 와쇼쿠 보호, 와쇼쿠 문화의 차세대 계승과 정보 발신, 와쇼쿠 문화의 국가를 초월한 가치 공유, 와쇼쿠 문화 보호·계승을 위한 인재·기업·단체 발굴과 육성이라는 방침을 세우고 활동하고 있다.

한편, 2017년 10월부터 와쇼쿠 보호·계승을 위한 시책을 일원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성 식료산업국에 ‘식문화·시장개척과(食文化·市場開拓課)’를 두고, 그 안에 ‘와쇼쿠 실(和食室)’을 설치하였다. ‘와쇼쿠 실’은 와쇼쿠 회의를 비롯한 관계단체와 밀접하게 제휴하면서 와쇼쿠 급식 실시와 와쇼쿠 문화 환경 정비 등을 추진한다. 제7회 ‘와쇼쿠의 보호·계승 추진검토회’에 출석한 와쇼쿠 실의 가쓰노 미에(勝野美江) 실장은 “유네스코의 제도에서 보면 국민이든지 민간이 확실하게 시행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구조이므로, 정부가 앞에 나서는 것은 그다지 평가받지 못한다.”²⁷⁾고 발언하였다. 와쇼쿠 회의의 전신인 ‘일본 식문화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화 추진협의회’를 농림수산성에서 민간으로 이관한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와쇼쿠 문화 보호·계승 책임을 안고 있는 유일한 민간단체인 와쇼쿠 회의가 떠맡고 있는 책임의 무게가 큰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2 와쇼쿠 문화 계승 대책과 과제

2020년 농림수산성의 ‘식육에 관한 의식조사’²⁸⁾에 따르면, 지역과 가정에 전해진 요리,

25) ‘일반사단법인 와쇼쿠 문화 국민회의’ 홈페이지

<https://washokujapan.jp/info/info-20170818/> (검색일:2020.4.15)

26) 田島寛(2019)『和食の心とかたち』『表面と真空』62-2, p.98

27)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https://www.maff.go.jp/j/council/seisaku/syoku_vision/pdf/h27_dai7kai_gijiroku.pdf(검색일:2020.4.15)

맛, 식사 예절을 물려받았다고 응답한 국민이 전체 69.6%이며, 20~39세의 젊은 세대에서는 61.6%에 달한다. 반면에 이러한 전통적인 식문화를 물려받아 전하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47.9%에 머무르고 있다. 이어서 전통적인 식문화를 계승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전통적인 식문화 전승을 위해 71.5%가 부모로부터 가정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했고, 뒤를 이어 37.7%가 어릴 때 학교에서 배워야 한다고 했다. 이는 과거부터 매년 시행되어 온 조사결과와도 거의 다르지 않은 수치이다.

또한, 2017년 농림수산성이 약 1,000명의 육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와쇼쿠에 관한 이미지 조사²⁹⁾에서는 건강식이며 영양 균형이 좋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손이 많이 가서 귀찮다’ ‘염분이 높아지기 쉽다’ ‘모양이 화려하지 않다’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함께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젊은 세대에서는 와쇼쿠의 계승이 원활하지 않고, 와쇼쿠 문화를 경원시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젊은 층 중에서도 육아 세대는 와쇼쿠 문화의 차세대 계승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계층이므로 앞의 설문조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와쇼쿠 문화를 이끌어가야 할 계층은 넓게 보면 일본국민 전체가 되겠지만, 이를 가정과 직업으로 나누어 조사한 ‘와쇼쿠 회의 설문조사’³⁰⁾의 결과를 보면, 가정에서의 와쇼쿠 보호·계승을 위한 중심인물로 가정주부(53.5%)와 초등학교생(50%)이 차지하였고, 직업별로는 요리사(45.6%), 학교급식 관계자(38.6%), 식재료 생산자(35.1%)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 결과를 보면, 차세대 교육을 책임질 가정주부, 학교급식자와 같은 입장이 보다 중요시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가정주부와 초등학교생이 와쇼쿠 문화를 책임질 중요 인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 ‘와쇼쿠를 미래로(和食を未来へ)’³¹⁾에 따르면, 2010년도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프랑스 식문화의 경우는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에서는 아동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집으로 가져가 전달하면, 그것이 가정에 침투해서 식문화 계승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생각이 강하다는 보고가 있다. 이렇게 보면, 아동과 함께 가정주부(가정에서 요리를 담당하는 사람), 혹은 육아 세대를 대상으

28)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https://www.maff.go.jp/syokuiku/ishiki/h31/pdf_index.html(검색일:2020.4.30)

29)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和食のユネスコ無形文化遺産登録5周年!」

https://www.maff.go.jp/keikaku/syokubunka/wasyoku_unesco5/unesco5.html(검색일:2020.4.30)

30)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和食會議アンケート調査の結果報告」

https://www.maff.go.jp/council/seisaku/syoku_vision/pdf/dai2kai_siryou2.pdf(검색일:2020.4.15)

31)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和食を未来へ」

<https://www.maff.go.jp/keikaku/syokubunka/culture/attach/pdf/index-75.pdf>(검색일:2020.4.25)

로 하는 계승 정책을 중요시하는 것은 일본의 특이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채로운 조사결과가 현재 추진 중인 와쇼쿠 문화 계승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와쇼쿠 문화 계승을 위해 시행 중인 주요 대책은 육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와쇼쿠 문화 보급 추진, 전국 아동 와쇼쿠 왕 선수권, 와쇼쿠 급식 대치, 지역 식문화 보호·계승 대치, 와쇼쿠 문화 학습 교재 제공 등이다. 이 중에서 지역 식문화 보호·계승 대치를 제외하면, 와쇼쿠 문화 계승 정책이 주로 육아 세대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시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간단체 와쇼쿠 회의도 요리전문가와 연계하여 교육현장에서의 아동 식생활 활동의 일환으로 각 학교를 방문하여 ‘데마에(出前배 : 요리배달) 수업’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의 와쇼쿠 급식 확산과 더불어 요리전문가에 의한 학교출장 수업 및 워크숍 확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메뉴 개발이 중심이 되고 일본의 전통적인 식문화 전승이라는 시점이 약화된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당연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와쇼쿠는 요리 그 자체가 아닌 자연을 존중하는 정신에 근거를 둔 일본인의 식습관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와쇼쿠 보호·계승 추진 조직인 와쇼쿠 회의는 와쇼쿠를 “일본인의 생활문화”이며, “일본의 식습관”, 그리고 “일본인의 생활에 정착해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하였다.³²⁾ 또한, 와쇼쿠 추진검토회는 요리로서의 와쇼쿠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변해 갈 것이므로, 와쇼쿠 문화의 본질, 와쇼쿠 문화에 갖든 정신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와쇼쿠 문화의 계승으로 이어질 것이라 지적하고, 와쇼쿠의 습관화가 와쇼쿠의 계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³³⁾ 다시 말해, 일본의 전통적인 식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도모와 함께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비로소 차세대 계승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5. 나오며

와쇼쿠의 유산 등재 이후에 해외에서의 일본식 식당 증가, 농수산물·식품수출액 증가, 방일 외국인의 향토 요리에 관한 관심 증가 등 세계적으로 와쇼쿠 문화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32) 일반사단법인 와쇼쿠 문화 국민회의 홈페이지「和食の心と形」

<https://washokujapan.jp/washoku-katachi/> (검색일:2020.4.15)

33) 농림수산성 홈페이지「和食文化を守る。つなぐ。ひろめる。」

https://www.maff.go.jp/j/council/seisaku/syoku_vision/pdf/h27_washoku_panfu.pdf(검토일:2020.4.25)

농림수산성 발표자료에 따라 2013년과 2017년의 수치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해외에서의 일본 식 식당 수가 5.5만 점포 11.8만 점포, 농수산물·식품수출액이 5,505억 엔 8,071억 엔, 방일 외국인 여행소비액은 1조4,167억 엔 4조4,161억 엔으로 항목별로 1.5배에서 3배에 이르는 증가 폭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방일 외국인이 일본의 지방 여행에서 하고 싶은 일은 ‘온천·자연관광지 방문’에 이어 ‘향토 요리 체험’으로 지방의 다양한 음식에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청이 와쇼쿠의 유산 등재 후보선정 이유 중 하나로 제시했던 일본 식문화에 대한 매력 향상과 일본문화의 발신이라는 목적을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산 신청배경의 최대 요인으로 생각되는 원전사고 이후 실추된 일본 음식과 농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던 목적도 어느 정도는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 국내외에서 와쇼쿠 문화에 관한 관심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에서는 와쇼쿠를 경원시하는 경향이 강하고, 와쇼쿠를 배우고 전승하는 비율이 높지 않아 여전히 와쇼쿠의 위상이 총체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편, 와쇼쿠의 문화유산 등재로 일본 정부는 와쇼쿠 문화를 보호·계승하여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식문화의 계승을 위한 식육추진’을 ‘식육추진기본계획’의 중점과제의 하나로 삼았으며, ‘문화예술기본법’을 개정하여 ‘식문화’를 ‘생활문화’로 포함시킴으로써 본격적인 보호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와쇼쿠 문화의 보호·계승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기 위해 ‘일반사단법인 와쇼쿠 문화 국민회의’를 설립하고, 정부와의 협력하에 각종 식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였다. 와쇼쿠 계승 대책은 주로 육아 세대와 가정주부, 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와쇼쿠 급식 확산과 더불어 요리전문가의 현장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계승 대책에 있어 유의점은 요리 자체가 아닌 ‘와쇼쿠 문화의 본질’ ‘와쇼쿠 문화에 깃든 정신’을 함께 전승해 가야 한다는 점이며, 일본 전통 식문화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와쇼쿠 문화 계승을 위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上中修(2019)「学校園における和食文化の保護と継承：和食のユネスコ無形文化遺産登録の申請過程の検証を通して」『教育学論究』11号, 関西学院大学教育学会, p.8
- 江原絢子·熊倉功夫(2018)『和食とは何か』思文閣出版, p.23
- 熊倉功夫(2017)「和食文化を再考する」『學士會會報』學士會, pp.53-54

黒谷佳代他(2019)「都道府県食育推進計画の特徴：具体的目標の分析から」『日本公衆衛生雑誌』66-12, p.756

田島寛(2019)「和食の心とかたち」『表面と真空』62-2, p.98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https://www.maff.go.jp>

문화청 홈페이지 <https://www.maff.go.jp>

일반사단법인 와쇼쿠 문화 국민회의 홈페이지 <https://washokujapan.jp>

논문투고일 : 2020년 07월 05일

심사개시일 : 2020년 07월 14일

1차 수정일 : 2020년 08월 06일

2차 수정일 : 2020년 08월 14일

게재확정일 : 2020년 08월 20일

<要旨>

‘와쇼쿠(和食)’ 문화 계승을 위한 보호 조치와 대책
김현욱

본고에서는 와쇼쿠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신청 경위와 와쇼쿠 문화의 실태를 조사하고, 와쇼쿠 문화의 보호 조치 및 그 계승 대책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와쇼쿠의 문화유산 신청배경의 최대 요인은 원전사고에 의해 실추된 일본 음식에 대한 신뢰회복이었으며, 그 목적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와쇼쿠가 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와쇼쿠 문화를 보호하고 계승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민간 조직인 ‘와쇼쿠 문화 국민회’가 설립되었고, 정부와의 협력하에 와쇼쿠 문화 보호와 계승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 왔다. 와쇼쿠 회의가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은 와쇼쿠 문화 소재자 간행, 보호·계승에 필요한 정보수집, 조사·연구, 와쇼쿠의 매력 발신, 조리기술과 기기의 전승, 향토 음식 발굴, 와쇼쿠 급식의 계발·촉진 활동 등이다. 또한, 기존의 ‘문화예술기본법’을 개정하여 ‘식문화’를 ‘생활 문화’ 속에 포함시켰고, 식생활 교육의 중점과제로 삼아 본격적인 보호 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와쇼쿠 계승 대책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와쇼쿠 문화의 본질’ ‘와쇼쿠 문화의 정신’을 함께 전승해 가야 한다는 점이다.

The protection measures to inherit the culture of Washoku
Kim, Hyeon-Wook

This research paper contains the process of Washoku acknowledged by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oreover, this paper includes a profound understanding of the culture of Washoku and the feature of preparing measures to protect the tradition of Washoku. The significant background of the process of Washoku to be recognized by the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as to restore trust caused by the nuclear disaster. Since the nuclear disaster lost people's faith, by reviving traditional Japanese meals, they were able to recover people's respect, which to some extent, successful. After the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knowledged Washoku, Japan's government had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to inherit the culture. Hence, the private organization called "Washoku Japan" was established, and they cooperated with the government of Japan to seek the way to protect the culture of Washoku.

Furthermore, the fundamental act on culture was revised to include not only the food culture, but also pervades to the daily lives of people. Additionally, emphasizing dietary culture in education made possible to implement full-fledged protection measures. Nevertheless, we have to ensure the essence of the Washoku culture and cultural spirit as we protect the culture of Washoku.